

##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

성경말씀: 마5:4

2017년 정유년, 닭띠 해, 새해 첫 날이 주일이라 매우 기쁘다.

어제 토요일이라 송구영신 예배 없음, 송구영신의 의미, 목사의 새해 첫 설교도 무언가 목표가 담긴 평상시 같으면 여호수아의 가나안 정복, 느헤미야의 성벽 건축, 솔로몬 성전 건축 등 희망과 건설 나만 그런지는 몰라도 2016년 말은 국가, 경제, 국제정세 등 우울하다. 당분간 이런 현상의 지속 이런 침체 분위기는 무언가 우리를 각성하게 한다. 그런 차원에서 희망을 보게 해 준다.

그래서 2017년은 차분하게 우리를 돌아보는 해로 삼기 위해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는 설교  
산상수훈

2000년 전, 유대 땅의 고통 받는 민초들, '회개하라. 하늘의 왕국이 가까이 왔다'(마4:17)

메시아 표적(마4:23-25), 마5장의 산상 수훈에는 왕국의 백성의 생활양식이 들어 있다.

여기의 왕국은 죽어서 가는 천국이 아니라 땅에서 육신을 입고 사는 곳(마6:10, 하나님의 뜻)

천국에서는 몸이 영화롭게 변화되어 죽음, 고통, 질병, 아픔, 시기, 질투를 모른다(계21,22).

그러나 여기의 왕국은 육신을 입은 사람들, 1차적으로 유대인들이 사는 곳: 천년왕국

우리는 휴거 대상(천국), 그러나 지금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살고 있기에 이 말씀 중요함  
예수님은 여기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며 그분과 함께할 수 있는 사람들의 조건을 기술함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을 '복이 있다'(blessed)고 표현함, 돈, 명예, 학식, 자식 이런 것 말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이상의 복은 없다.

보통 8복이라고 하는데 실제 3-11절까지는 '복이 있다'는 말씀이 9번 있다.

이상한 것은 여기의 복 있는 사람들은 세상의 복 있는 사람들의 특성과는 전혀 무관 혹은 정반대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

애통하다: mourn은 보통 초상이 나서 심히 슬퍼하며 애곡하는 데 쓰는 말이다.

우리의 삶에서 애통은 결코 복된 일이 아니다. "그런데 애통하는 자들이 복이 있다. 위로를 받는다."  
언제 애통하는가?

우리 힘으로 일이 풀리지 않을 때 애통한다: 사망, 사고, 낙심, 내 힘으로 잘 될 때는 기고만장  
이런 차원에서 하나님인 예수님은 '내 힘으로 안 되는 일을 두고 슬피 올라'고 하신다. 그 뒤 위로  
그러므로 성경적 관점에서의 행복은 내 힘으로 안 되는 것을 인식하고 하나님을 의지할 때 생긴다.

1. 죄 문제를 두고 애통해야 한다.

사람은 죄 가운데서 출생해서 죄 가운데서 살다가 죽는다. 죽는 이유가 바로 죄이다.

죄인이기에 죄를 짓는다. 이것을 인지하고 애통하는 마음을 가져야 죄들에서 구원을 받는다.

죄의 삯은 사망(롬6:23). 요11:32-35, 예수님의 두 번 우심 중 하나(눅19:41)

죄 인지, 미워하고 탈출하려고 애쓰며 이를 위해 오직 주 예수님만 믿을 때 구원의 위로를 받는다.  
엡2:8-9

요3:16; 5:24; 14:16-17, 영원토록 내주

2. 인격의 변화가 없음을 두고 애통해야 한다.

구원 이후에도 내 옛사람이 살아서 움직이기에 여전히 죄 속에 거하며 죄와 분투할 때 애통한다.  
롬7:15, 18, 22-24, 25

킹제임스 성경의 진리, 1. 영혼의 자유, 2. 진리와 비진리 구분, 3. 인격의 변화, 4. 교회 섬김  
그 결과 구원 이후에도 참된 회개(고후7:10-11)

3. 교회 섬김의 부실을 두고 애통해야 한다.

이전 교회, 킹제임스 성경 모를 때 얼마나 열심히 어느 면에서 무지함 속에서 섬겼는가!

그런데 진리를 알고 지식이 많아지니 판단(비평)은 늘고 섬김은 준다. 이것을 두고 애통해야 한다.  
예배 출석 마음대로, 헌금 강요 없음, 이런 자유를 남용해서 헌금을 안 하면 애통하는 자세가 아니다.  
영혼의 자유의 의미: 자기 마음대로 믿음 생활하는 것이 아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의 조명을 받아 하나님의 말씀을 스스로 판단하여 행할 수 있는 자유 중세 암흑시대에는 영혼의 자유가 없었다. 기존 교회에서는 교단과 교파의 성경 해석 등

그러나 여기는 영혼의 자유로 그런 제약이 없다. 그런데 이것이 방종으로 바뀌면 안 된다. 즉 영혼의 자유는 양심의 자유, 그 안에 들어오면 멍에를 배고 배워야 한다(마11:28-30) 영혼의 자유가 제대로 작동하면 1. 예배 참석, 2. 자발적 섬김: 여기에는 헌금 포함, 3. 남의 충고와 조언에 귀를 기울임(약3:17, 위로부터 난 지혜는 화평하며 부드럽고 간청을 잘 들어 준다.) 사도 바울의 표현(롬6:1-2)

1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가 넘치게 하려고 우리가 죄 가운데 거하겠느냐?

2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서 더 살리요?

영혼의 자유가 넘치게 하려고 방종 가운데 거하겠느냐?, 방종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4. 진리가 비방받는 것을 보고 애통해야 한다.

올해는 1517년 루터의 종교개혁 500주년, 핵심은 종교개혁 성경, 프로테스탄트 킹제임스 성경

5. 국가의 안위를 두고 애통해야 한다.

지난 몇 달 동안 최순실 씨 국정 농단, 대통령 탄핵 소추 가결

촛불 집회, 태극기 집회, 국론 분열, “정치인들과 언론이 가장 후진성을 면치 못하고 있다.”

이것이 누구의 문제인가? 내 문제요, 특별히 기도하지 못하고 아이들 정신 교육 제대로 시키지 못한 그리스도인들의 문제이다. 그래서 이를 두고 애통해야 한다.

이 나라가 어떤 나라인가? 70년 동안 어떤 복을 누렸는가? 모든 것을 수포로 만들 수는 없지 않은가? 올해는 대통령을 뽑아야 한다(딤후2:1-3). 미리 미리 애통하면서 지도자를 놓고 기도하자.

#### 결론

2017년이 시작되었다. 우리의 올해 목표는 ‘애통하는 자가 되는 것’이다. 인격의 성장

1. 나의 죄성, 회개, 인격의 변화, 교회 섬김, 진리 전파, 국가 지도자

이런 것을 추구할 때 주님의 약속대로 이루어진다. 개인의 모든 육적 필요, 교회의 모든 육적 필요

31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우리가 무엇을 먹을까? 혹은,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혹은, 우리가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32 (이 모든 것은 이방인들이 구하나니)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는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필요한 줄 아시느니라.

33 오직 너희는 첫째로 [하나님]의 왕국과 그분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마6:31-33)